

SPORTS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 11~17일 보성 다향체육관서 개최

‘제3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전남 보성군 다향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보성군체육회·보성군씨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초·중·고·대학부 단체전과 개인전 7체급(경장·소장·청장·용장·용사·역사·장사급), 여자부 개인전 3체급(매화·국화·무궁화급) 경기에 1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경쟁한다.

경기는 전 종별 예선전-8강까지는 단판제로 하며, 준결승 및 결승전은 3판 2선승제로 진행된다. 또 모든 경기는 맞불기(토너먼트) 방식으로 열린다. 모든 경기는 유튜브 채널 ‘살바티비’에서 시청할 수 있다.

14일 대학부 단체전 준결승-결승, 15일 중학부 단체전 준결승-결승, 16일 고등부 단체전 준결승-결승은 MBC PLUS (MBC SPORTS+)에서도 생중계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김연경, 18년 만 통합 MVP 예약 챔프전 이어 정규리그도 유력

라스트 댄스를 화려하게 마친 ‘배구 여제’ 김연경(흥국생명)이 은퇴 시즌의 대미를 장식할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도 도전한다.

김연경은 8일 열린 정관장과 2024-2025 프로배구 여자부 챔피언결정 5차전에서 소속팀의 우승을 확정하고 기차단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챔프전 MVP로 뽑혔다.

V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통산 자신의 한 경기 최다인 블로킹 7개를 잡아내며 올 시즌 역시 최다인 34점을 뽑은 뒤에 얻은 값진 선물이었다.

김연경의 챔프전 MVP는 데뷔 첫해였던 2005-2006시즌과 2006-2007시즌, 2008-2009시즌에 이어 네 번째다.

챔프전 MVP로 마지막 경기의 주인공이 된 김연경은 정규리그 MVP도 남긴다.

오는 14일 V리그 시상식 때 공개될 정규리그 MVP를 뽑는 기자단 투표는 지난 달 마쳤다.

김연경은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득점 7위(585점), 공격 종합 2위(46.03%), 서브 8위(세트당 0.230), 리시브 효율 2위(41.22%)에 오르는 등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아웃사이드 히터이면서 득점은 국내 선수 중 1위이고,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해 소속팀의 정규리그 1위에 앞장섰다.

2년 연속 1000 득점을 돌파하며 득점왕을 2연패한 괴물 공격수 지젤 실바(GS칼텍스·등록명 실바)와 챔프전 무대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메가워터 퍼티워(정관장·등록명 메가)가 대항마로 꼽히지만, 김연경의 정규리그 MVP 수상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올 시즌을 끝으로 코트를 떠나는 ‘은퇴’와 맞물려 동정표가 붙었을 수 있다. 김연경이 정규리그 MVP마저 차지한다면 챔프전 MVP를 포함해 통합 MVP가 되는 건 2006-2007시즌 이후 18년 만이다.

연합뉴스



흥국생명 동료들이 행가래 쳐주는 김연경.

배구

‘미친 타격감’ KIA 변우혁, 해결사로 우뚝

KIA타이거즈 내야수 변우혁이 위기에 빠진 팀을 구해내며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오른 타격감으로 중요한 승부처마다 타점을 뽑아내면서 팀 승리를 이끌고 있는 것.

변우혁은 지난 8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3루수 겸 6번 타자로 선발 출전, 5타수 2안타 3타점으로 맹활약했다.

변우혁의 활약에 힘입어 5-4 승리를 거둔 KIA는 이날 2연패 탈출과 동시에 리그 공동 7위(5승 8패)로 올라섰다.

이날 변우혁은 팀이 1-2로 지고 있던 6회초 2사 만루 상황 중 양을 가르는 2타점 적시타를 폭발시키면서 승부의 균형을 바꿨다.

9경기 32타수 11안타 11타점 타율 0.344 ‘맹활약’ 승부처마다 득점으로 승리 견인…김도영 공백 메워

그는 8회에도 맹타를 휘둘렀다. 7회 롯데가 1점을 추격하며 만들어진 3-3 동점 상황. 변우혁은 8회초 1사 2루 찬스에서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적시타를 터트렸다. 이 안타는 팀 승리를 이끈 결승타가 됐다. 이어 최원준의 볼넷과 김태군의 적시타까지 타치며 KIA는 2점을 더 달아냈다.

8회말에는 상대 전진재의 안타로 1점 추격을 허용했지만, 9회말 정해영이 삼자범퇴로 이닝을 막으면서 KIA 5-4 승리를 확정 지었다.

9일 경기 전 기준 9경기에 출전한 변우혁은 32타수 11안타 11타점 타율 0.344를 기록하며 맹활약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4경기에서는 남다른 활약을

펼쳤다. 6일 LG트윈스전(1안타)을 제외하고는 모두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이 기간 타점 또한 3-2-1-3을 뽑아내면서 팀에게 2번의 승리를 안겼다. 특히 지난 3일 삼성전에서는 혼자서 3점을 뽑아내면서 팀의 3-1 승리를 이끄는 인상 깊은 경기력을 펼쳤다.

변우혁은 올 시즌 유독 클러치 상황에서 강한 모습이다. 주자가 없을 때 타율은 0.182에 그친다. 이 수치는 1루에 주자가 있을 때 0.429로 치솟고, 득점권에서는 0.533에 달하는 불방망이를 선보이고 있다. 그만큼 찬스를 놓치지 않는 확실한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변우혁의 활약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다.

현재 KIA는 불펜진이 흔들리면서 리그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결국 버티기 위해선 타선의 힘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시리즈 MVP 김선빈과 ‘최연소 30홈런-30도루’의 주인공인 김도영이 부상으로 이탈했다. 여기서 변우혁이 3루수로 출전하면서 안정적인 수비력을 선보이고 있고, 공격에서도 활로를 뚫고 있다. 부상 공백을 최소화하며 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는 변우혁 개인적으로도 좋은 기회다.

변우혁은 지난해 69경기에 출전해 51안타 5홈런 21타점 22득점 타율 0.304 OPS(장타율+출루율) 0.839로 커리어하이 시즌을 보냈다. 백업 자원으로 1루와 3루 포지션을 소화했던 그는 올 시즌 역시 주전으로 뛰기는 어려웠다. 새 외인 타자로 1루수 패트릭 위즈덤이 KIA에 합류했고, 3루에는 ‘슈퍼스타’ 김도영이 버티고 있다.

그러나 김도영이 빠지면서 주전 기회를 잡았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뽐내고 있다. 물론 위즈덤과 김도영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확실히 위협적인 능력자이다.

변우혁이 이러한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팀 승리를 이끄는 해결사로 우뚝 설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신정식 전남축구협회장,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선임

대한축구협회 제55대 집행부 구성…전남 출신으로 52대 허정무 이후 영광

신정식 전남축구협회장(65)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9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신정식 전남축구협회장은 이날 발표된 대한축구협회 제55대 집행부에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지난 2월 26일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정몽규 회장은 3월 28일 대한체육회로부터 회장 인준을 받고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했다.

17개 시·도협회를 대표해 부회장에 선임된 신회장은 K리그를 대표한 김병지(강원FC 대표이사), 이용수(세종대 명예교수), 박항식(前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 신태웅(前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 감독) 감독 등과 함께 부회장단으로서 정몽규 회장을 보필할 예정이다.

보성 벌교 출신인 신회장은 2016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첫 통합 전남도축구협회장에 올랐고, 최근 3번째 연임에 성공하면서 임기를 소화 중이다.

지난 2001년 전남축구협회 이사를 시작으로 전남축구와 연을 맺은 신회장은 이후 부회장을 역임하며, 24년째 전남축구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전남축구의 산 증인이다.

또 한국여자축구연맹 부회장과 전남도체육회 이사로 활동했으며, 2021년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수상에 이어 지난해에는 전국종합체육대회 성공 개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까지 수상하는 등 전남



가 투병행정, 정도행정, 책임행정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정식 회장의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선임은 허정무 前 국가대표팀 감독(진도 출신)의 제52대 이후 전남 출신으로는 2번째로, 임기는 오는 2029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체육 발전에 크게 공헌해오고 있다.

신정식 전남축구협회 회장은 “17개 시·도축구협회를 대표해 부회장으로 선임돼 개인적인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축구협회가



바흐 IOC 위원장과 만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회장, 바흐 IOC 위원장 면담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공식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위원장과 만나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 추진을 공식화했다.

유승민 회장은 8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 IOC 본부를 방문해 바흐 위원장과 면담했다.

유 회장은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난 건 체육회장 취임 후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유 회장이 지난 1월 14일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 전화 통화에서 바흐 위원장이 “이른 시일 안에 로잔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면담에는 유 회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명수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장이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 회장과 김 지사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특히 전주시가 보유한 역사문화 자산과 지속가능한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대회 개최지로서의 적합성을 강조했다.

이후 폴란드 그라바르 카타로비치 하계올림픽 미래유치위원회 위원장과 크리스토퍼 두비 IOC 올림픽 수석국장 등 실무진도 만나 전주 하계올림픽의 대회 콘셉트와 준비 방향을 설명했다.

한국 대표단은 앞으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앞서 참고해야 하는 IOC의 가이드라인, 절차, 타 입찰인 등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6년 올림픽의 국내 유치를 위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체계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권고안은 IOC 집행위원회에 제출되며, 집행위는 검토한 뒤 특정 도시와의 ‘집중 협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 IOC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후 총회에서 전체 IOC 위원 투표로 통해 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된다.

연합뉴스

무안군청 검도팀, 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 ‘우승’

결승서 남양주시청 4-1…시즌 2관왕 유하늘, 개인전 6단 이상부 3위 입상

무안군청 검도팀이 ‘2025 봉림기 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9일 전남도검도회에 따르면 무안군청 검도팀은 최근 경남 거창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남자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앞서 동계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던 무안군청 검도팀은 이로써 올 시즌 단체전 2관왕에 올랐다.

무안군청은 단체전 16강에서 담서구청을 3-2로 꺾으며 기쁜 출발을 알렸다. 8강에서는 구미시청과 1-1 접전 끝에 대표전에서 김한번의 손목치기 득점으로 2-1 승리를 거두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어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를 4-3으로 제치고 결승에 오른 무안군청은 마지막 경기에서 남양주시청을 4-1로 완파하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동계 실업대회에 이어 다시 한번 단체전 정상에 오른 무안군청 검도팀은 탄탄한 팀워크와 뛰어난



‘2025 봉림기 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3위를 차지한 무안군청 검도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개인전에서도 뛰어난 활약이 이어졌다.

6단부 이상 개인전에 출전한 주장 유하늘은 8강에서 주연우(담서구청)를 상대로 머리치기 2득점으로 2-0 승리를 거두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는 조진용(용인시청)과의 치열한 연장전 끝에 반대허리를 허용하며 0-1로 석패, 최종

3위를 차지했다.

이광철 무안군청 감독은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값진 결과를 얻어 기쁘다”며 “특히 지난 동계대회에 이어 이번 봉림기 대회까지 연속 우승을 달성한 것이 더욱 뜻깊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